

이글거리는 태양보다 뜨겁게

표면 온도 6,000℃
중심부 15,000,000℃
흑점 부근 4,000℃
코로나 1,000,000℃

이글거리는 거대한 불덩이
태양보다 뜨거운 것은 당신의 열정 밖에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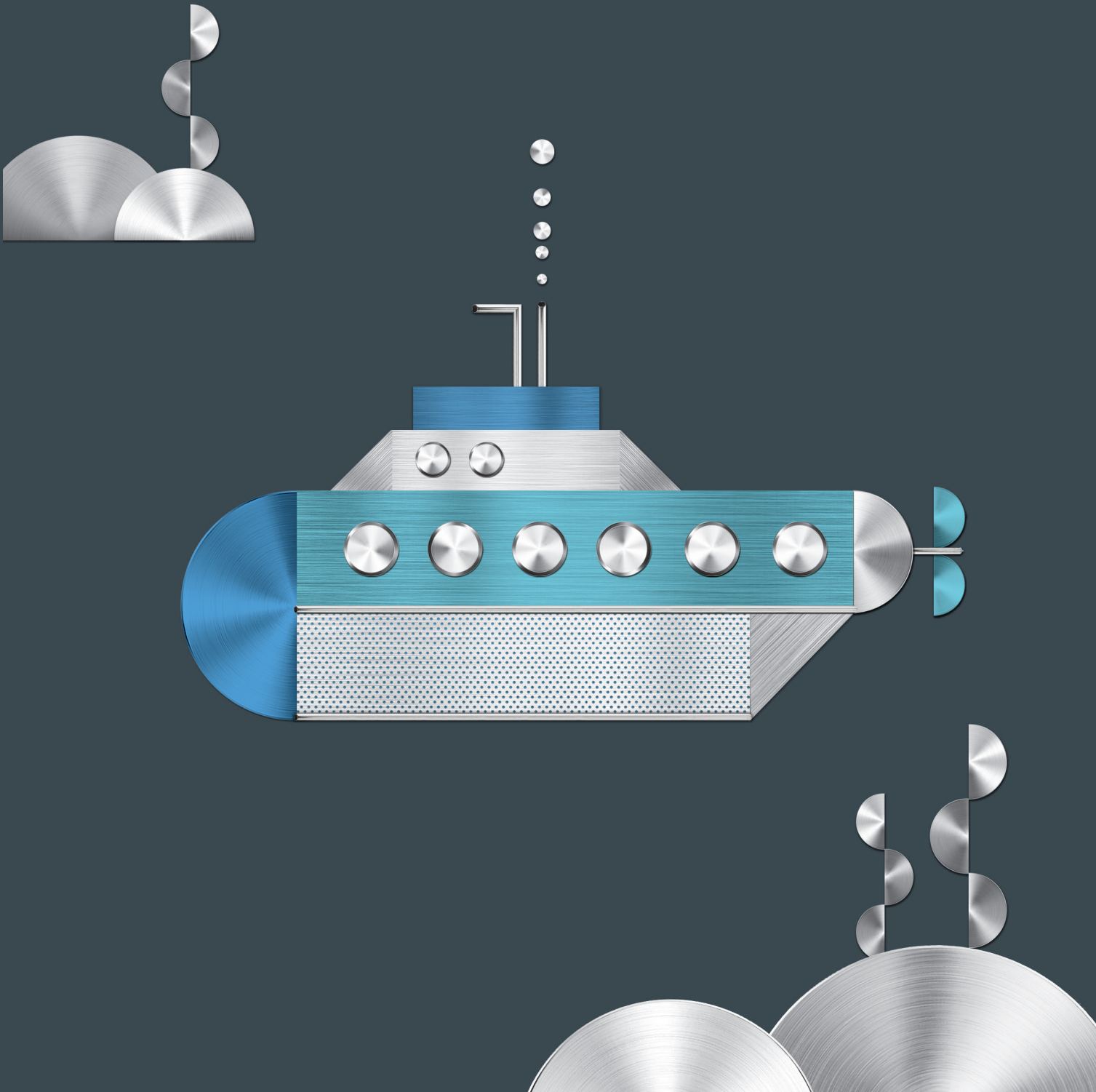


세아강조
2017 JUL + AUG Vol. 370

세아강조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

2017 JUL + AUG Vol. 370





Cover Story

심해를 탐험하는 잠수함처럼 깊이 몰입할수록 우리는 이제껏 가보지 못한 세계와 조우하게 됩니다.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더 넓고 큰 세상으로 이끌어주는 즐거운 몰입. 자신이 맡은 일에 깊이 몰두하는 자세와 집중력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내일을 새롭게 만드는 힘, 열정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Rising SeAH

- 04

테마 에세이

지금 이열치열하고 계십니까?
- 06

테마 초대석

김동영 작가
- 10

테마 스토리

즐거움의 힘
- 14

세아는 지금

세아씨엠 창립기념식
2017년 하반기 그룹 신입사원 입문교육
- 22

타임머신

즐겁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세아의 발자취
- 26

글로벌 세아인

SeAH Steel UAE, LLC 판매팀

Together SeAH

- 30

팀 플레이

세아특수강 충주공장
세아업적상 기술개발부문 금상 수상 TF팀
- 34

특별한 만남

세아 FS 마케팅팀 강정호, 이기동 사원
- 38

더불어 사는 세상

세아제강 사원 부인회
- 42

해피 패밀리

가족 여권 케이스 만들기
- 46

컬처 가이드

오페라 티켓은 왜 비싼가?
- 48

SeAH News
- 49

People News
- 50

Post Box

발행일 2017년 8월 24일 발행인 서영범 발행처 세아홀딩스 주소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45 세아타워 30층
기획 세아홀딩스 홍보파트 02-6970-0095 기획·디자인 (주)더윤호 02-733-0790
인쇄 드림인쇄(주) 02-464-6161 사진 A one Studio 02-553-4430 *외부 필자의 글은 <세아가족>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세아가족> 웹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열치열하고 계십니까?

낮 기온 30℃는 예사.

또다시 더위와 한파 전쟁을 벌이는 여름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더운 여름, 세아인 여러분은 이 계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만 쫓거나 차가운 음식만 찾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조상들은 한여름 무더위를 이기는 방법으로 이열치열을 즐겼습니다.

이열치열은 말 그대로 열로 열을 다스린다는 뜻.

더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라 할 수 있죠.

더위를 잘 이겨내야 비로소 가을의 결실이 풍요로워진다고 생각했던 우리 선조들은

여름 더위를 반가운 손님이라 여겼다고 합니다.

뜨거운 여름, 인생을 열정적으로 불태울 여행을 떠나거나

무더위를 잊을 만큼 운동에 빠져보면 어떨까요?

맵고 뜨거운 음식을 맛보며 여름을 고스란히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에어컨 바람에도 꿈쩍 않던 무더위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기가 막힌 경험을 할지도 모릅니다.

뜨겁게 살아있음을 느끼는 계절,

이 여름을 피하지 말고 즐겨보세요.





꿈꾸는 직장인이 행복하다 김동영 작가

저서에서 ‘나는 نوم 위에 즐기는 نوم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즐기는 힘이 재능보다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자신이 하는 일이 재미있으면 밤늦게까지 일해도 힘이 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좀더 잘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깁니다. 이 경우 일은 하나의 재미있는 놀이가 됩니다. 일을 즐겁게 하면 당연히 성과도 나오게 되죠. 그러면 남보다 경쟁에서 앞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더 많은 기회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일에 재미를 느끼지 못하면 같은 일을 해도 그 일이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괜히 짜증만 나고 일을 대충하게 됩니다. 당연히 몰입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실수가 나오기 쉽습니다. 결국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없게 되죠. 그렇게 우물쭈물하다가는 일을 놀이처럼 하는 사람들에게 곧 추월 당하고 맙니다.

월요병을 치료하기 위한 가장 좋은 처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월요병을 없애기 위해서는 먼저 하는 일을 좋아하고, 그 일을 잘 해야 하죠. 그리고 직장 상사 및 동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게 되면 그 일을 잘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직장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관계도 좋아집니다. 일이라는 게 업무 숙련도와 전문성이 쌓이면 쌓일수록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일을 잘하는 방법도

많은 직장인들이 어제와 같은 오늘을 반복하며 뚜렷한 목표 없이 살고 있다. 일을 할수록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몸은 지쳐만 간다. 자연스레 불평불만만 늘어간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일상을 바꾸고 즐겁게 일할 수 있을까? <꿈꾸는 직장>의 저자, 김동영 작가는 행복한 직장 생활을 위해 ‘꿈을 가지라’고 조언한다.

알게 됩니다. 당연히 생산성도 높아지지요. 문제는 이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일정 기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일을 맡으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그 일에 한번 미쳐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그 일을 잘하게 되고 재미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해외 영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저는 인사교육 업무가 정말 하고 싶고, 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로부터 7년 후에 인사교육 업무로 전환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 신기하게도 월요병이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회사를 빨리 가고 싶어서 연휴가 싫어질 정도였죠. 직장 생활 20년 중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지역 전문가와 주재원으로 활동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나요?

제가 지역 전문가이자 주재원으로 활동한 인도는 끊임없이 사람을 인내의 시험대에 올려놓는, 여러 면에서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하루는 저녁 늦게 귀가하여 샤워하려고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당시 날씨는 40℃를 오르내리는 한증막 같은 무더위였고, 저는 하루 종일 시장조사를 위해 돌아다니거나 온몸이 땀으로 찌들어 있었음에도 끈적끈적한 몸으로 그냥 잠자리에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커먼 녹물이 쏟아져 나오는 날도 있었죠. 교통 인프라와 병원 시설은 열악하고 위생 관리도 철저하지 않습니다. 상식을 벗어나는 많은 일들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죠.

인도에서의 생활은 나 자신이 지금껏 얼마나 풍요로운 환경에서



살아왔는지를 다시금 일깨워 준 기회였습니다. 비록 짜증나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나를 단련시키고 삶의 자양분이 되는 마음의 보약을 먹는 시간이었죠. 행복은 일상의 조그마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해준 값진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또한 직장 경험을 통해 얻은 배움이지요.

글로벌 인재가 지녀야 할 여러 자질 중 열정을 가장 중요하다고 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는 그에 맞게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변화는 정말 힘든 일이지요. 세계적인 변화 전문가인 하버드대학교 존 코터 교수는 '변화는 큰 바윗덩어리를 산 정상까지 끌어올리는 것만큼 힘들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변화를 하려면 강력한 동인이 필요한데, 저는 그 힘이 바로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약점이 있더라도 열정이 있으면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정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열정은 만국 공통의 성공에너지입니다. 열정은 모든 일의 성공을 가능케 하는 힘이자, 글로벌 인재의 가장 중요한 역량입니다.

‘꿈을 이루어가는 삶이 행복한 직장인의 삶이다’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해외 영업을 할 때는 매일매일이 문제의 연속이었어요. 고객사의 대금 결제 지연, 제품 클레임, 가격 하락에 따른 보상 문제, 생산 지연에 따른 불만 등 하루도 마음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게 유일한 위안은 바로 꿈이었습니다. '지금의 시련을 참고 견디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의 힘든 상황을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용기를 내곤 했습니다. 꿈이 있고 내일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었던 것이지요. 꿈은 힘겨운 오늘을 이겨내고 다시 열정을 깨우는 희망이자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실제로 꿈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보면 일상 속에서 감동과 감탄의 순간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이 모여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꿈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요?

꿈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갈 곳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이고, 결국에는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부서에서 희망하는 일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꿈이 없으면 그저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변화의 물결에 휩쓸려 방향성 없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게 되고, 전문성도 갖추지 못하죠. 반면 꿈이 있는 사람은 뚜렷한 목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도 당황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아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직장 생활은 일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는 긴 여정입니다. 그 여정

을 잘 완주하려면 우선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은 행복한 직장인의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꿈꾸는 직장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그런 꿈을 찾으십시오. 꿈을 찾게 되면 지금 하는 모든 일이 미래의 꿈과도 연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녹록하지 않은 직장 생활에서 즐겁게 살아남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Profile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성균관대 경영학 석사(MBA)를 졸업했다. 삼성물산에 입사하여 인도 지역 전문가, 주재원으로 근무했으며, 23개국 60여 개 도시를 다니며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이자 HRD 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어떻게 꿈을 이루며 즐겁게 직장을 다닐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현재는 20년간의 직장 생활과 지금까지 크고 작은 꿈 37개를 이룬 경험을 바탕으로 꿈을 이루는 실천 노하우와 행복 원리, 성공적인 경력 설계, 글로벌비즈니스 협상 등에 대해 강의하며 프로 강사, 꿈 전도사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즐기는 자가 세상을 움직인다 즐거움의 힘

일터는 즐거워야 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곳이어야 한다.
새로운 발견과 혁신의 일상화는 즐거움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기업의 성공을 일구는 동력, 즐거움의 힘에 대해 알아보자.



세상은 지금 잘 노는 사람을 원한다

한때 '논다'는 표현으로 '공부 못하는 아이'를 지칭하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옛말. 어느덧 시대가 변해 잘 노는 아이가 공부도 잘하는 때가 왔다. 사회는 갈수록 잘 노는 사람, 인생을 즐기는 사람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모든 분야가 공부만 잘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주어진 과제만 잘 수행해도 어느 정도 성공이 보장됐지만 현재는 창의성과 지식 창출이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주어진 과제를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는 사람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사람이 각광받는 시대가 되었다.

지금처럼 정보와 지식이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는 다양한 정보와 지식이 제품과 서비스에 통합될 때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즉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협력을 통해 더 큰 성과를 내는 것이다. 결국 잘 논다는 의미는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는 것이고, 생각이 유연해 창의적 발상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현실을 즐기는 사람 vs 즐기지 못하는 사람

자신의 삶과 인생을 즐기는 이와 그렇지 않은 이가 보여주는 성과에는 큰 차이가 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자발성' 또는 '자기 주도성'의 차이이다. 인생이나 자신의 일을 즐기는 사람은 당연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과 일에 몰두한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늘 자기를 관찰하며, 피드백 또한 스스로 내린다. 이른바 자기 관찰, 자기 감독, 자기 결정권 등이 일하는 원동력이 된다. 인생과 자신의 일을 즐기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오래오래, 더 발전적으로 자신의 인생과 일에 몰입한다. 그러나 일을 즐기지 않는 사람은 항상 일에 대한 부담, 스트레스, 책임감 등에 짓눌려 있다.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사고방식과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고, 작은 실수에도 마음이 상하곤 한다. 그러나 즐기는 사람은 우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실수에도 너그러운 경향이 있다. 결국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자기 삶의 질을 높여가는 반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삶의 질이 낮아지고 결국 자기 삶에 대한 불만과 좌절이 늘어난다.





즐거는 힘이아말로 혁신을 이뤄내는 동력

무작정 즐긴다고 해서 현실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삶을 즐기는 힘이 발견과 창조로 이어지고 다시 새로운 혁신을 낳기까지는 분명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즐기는 힘이 혁신을 이뤄내기까지 혁신의 일상화를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은 무엇일까?

혁신은 도전적이고 비판적이고 자유로운 사고에서 나온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힘, 그것이 혁신의 원천이다. 항상 평균과 다수의 의견을 쫓고, 남이 하는 것을 따른다면 혁신은 어렵다. 다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신도 그런 사고로 생활할 때 혁신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업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즐거운 혁신의 출발점이다. 자신이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궁금증, 호기심, 이해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때 우리는 일의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즐거움이 지속되면 업무에 대한 집중도와 수행 능력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다.

모든 혁신은 마음에서 출발한다.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지금은 잘 모르지만 결국 자신이 해낼 수 있으리라는 마음에서 혁신이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모르는 것,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 번 시도하면 결국 지금보다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긍정적인 마음과 열린 사고가 필요하다.

세상을 변화시킨 즐거움의 힘

대학을 졸업하는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했던 스티브 잡스. 그는 대학을 중퇴한 후 자신의 집 창고에서 IT계의 혁신을 이끈 애플 컴퓨터를 만들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매진해 마침내 사회에 엄청난 혁신을 몰고 온 아이튠즈를 탄생시킨 것이다. 월트 디즈니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업무 환경을 위해 회의 방식을 바꾸었다. 바로 스토리보드를 만든 것. 애니메이션 작품의 계획을 직접 그리면서 보여주고 대사하듯 설명하는 디즈니의 회의 방식은 마치 애니메이션 속에 직접 들어가 있는 듯한 기분이 들도록 하여 딱딱한 회의 시간을 즐거운 자리로 만들어주었다.

자동차 산업에 혁신을 불려온 포드 자동차의 설립자 헨리 포드. 어렸을 때부터 지독한 기계광이었던 그는 15살에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자동차 제작에 올인하기에 이른다. 이후 그는 에디슨 회사에서 기술 책임자로 일하다 좋아하는 경주용 차 제작을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자동차 회사 포드를 설립했다. 좋아하는 일에 매진한 결과다.

자유와 책임감이 즐거운 일터의 핵심, AES

아침에 일어나면 빨리 회사에 가고 싶게 만드는 기업, 직원들이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열정적으로 발휘하는 회사를 상상해보라. 바로 미국 버지니아 알링턴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의 발전사, AES의 이야기다. 이 회사의 공동 창업자인 로저 샌트와 데니스 바케는 ‘한번 즐겁게 일해보자’는 모토를 내걸고 설립한 지 20년 만에 전 세계 31개의 나라에서 4만 명의 근로자들이 일하는 대규모 조직으로 회사를 성장시켰다.

AES가 추구하는 즐거움은 금요일 저녁의 맥주파티 같은 재미가 아니라 건물 관리인부터 CEO까지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즐거움이다.

데니스 바케는 ‘일의 즐거움’의 핵심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라고 생각했고, 1987년 AES 고유의 벌집 시스템을 고안해냈다. 자율, 수평구조, 의사결정의 분권화를 특징으로 하는 벌집 시스템은 관리자나 상사의 명령을 받지 않고도, 실무자들이 직접 의사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지는 체계이다.

AES의 발전소 기술자는 열교환기를 수리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정전 시간을 계획하고 필요한 교환 부품을 주문한다. 투입되는 금액이 상당할 경우에는 발전소장에게 자문을 구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기술자의 몫이다. 모집과 채용도 일반적으로 지명된 팀원에 의해 진행된다. 물론 다른 팀의 팀장이나 상급자의 조언을 구할 수 있지만 결정권은 해당 팀의 팀원들에게 주어진다.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AES 직원들은 자신이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는 가치를 실감할 수 있었고, 이는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업무 자세를 이끌어냈다.

AES는 포춘 200대 기업이자 세계 17개국에 전력을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여전히 활발한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혹 의무감에 일을 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일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무미건조하고 단편적인 일상은 결코 창조적인 결과를 얻을 수도, 혁신에 이를 수도 없다. 모든 일의 기본은 바로 ‘즐거는 힘’을 제대로 아는 것. 즐거울 때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일의 능률도 오른다. 그러기 위해 이제는 제대로 ‘즐거는 힘’을 갖춰야 할 때다.

참고 서적 데니스 바케 <일의 즐거움>, 글렌 반 에케렌 <즐겁게 일하라>





새로운 출발 새로운 의지

세아씨엠 창립기념식

세아제강 판재사업부문이 분할신설법인 세아씨엠(SeAH Coated Metal)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새로운 이름으로 출발하며 전 구성원이 '1등 경쟁력'을 향한 의지를 다지고 있는 곳,
세아씨엠 창립기념식 현장을 찾았다.

선택과 집중을 위한 법인 분할

지난 7월 1일, 세아씨엠이 공식 출범했다. 1997년 세아제강 판재사업부문으로서 건 축용 철강제품인 컬러강판의 생산을 시작 한 지 약 20년 만에 세아제강에서 독립한 것이다. 이번 분할은 각 사업부문의 업종 전문화 와 핵심 역량을 높이고 판재사업부문의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전 자 제품 등에 많이 쓰이는 판재 품목은 강관과 달리 제품 수요가 빠르게 바뀌는 특성이 있어 운영과 마케팅 측면에서 분리하는 것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라고 판단한 것. 세아씨엠은 시장, 제 품, 고객 등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해당 사업부문을 집중 연구하여 사업의 전문 성 및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신속하고 민첩한 독립 의사결정 기업으로

조직의 규모를 줄임으로써 변동성이 큰 시 장에서 생존력을 강화할 수도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 및 대응이 가 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소규모 조직의 장 점을 극대화해 사업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 처한다는 전략이다.

대형 조직 운영 중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원가경쟁력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세아제강은 매출 비중이 큰 강관사업 위주로 업무 프로세스 및 정책이 수립돼 왔다. 이번 분할법인 설립은 비효율 요인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온갖 부침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지난 7월 7일 세아씨엠 본관 3층 강당에서 신규 법인 설립을 축하하는 창립 기념식이 열렸다.

“지금부터 세아씨엠 창립기념식을 거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지원팀 정명재 팀장이 개회선언으로 행사의 시작을 알린 후, 식순에 따라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 등이 차례로 진행됐다.

이어 이치송 공장장이 부산철관공업 설립부터 분할법인 설립에 이르기까지 세아씨엠의 연혁을 소개했다.

1997년 군산에 첫 뿌리를 내린 이후 1998년 냉연사업에 후발주자로 뛰어든 세아씨엠은 선발업체들과의 경쟁,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공세와 원자재 가격 급등락 등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나가며 표면처리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해왔다. 그 사이 설립 첫해와 비교해 약 26배 가량의 성장을 일궈왔으며, 지난해에는 No.2 착색도장 설비(2CCL) 합리화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제2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도 마련했다.

1등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나갈 것

세아제강 판재사업본부장을 맡아온 김동규 상무가 세아씨엠의 대표이사라는 중책을 맡았다.

“세아씨엠의 출발은 한 단계 도약을 위한 도전입니다.”

김동규 대표는 이같이 말하며 ‘사업본부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독립된 의사결정이 가능한 독립기업으로서 당당히 시장을 개척하고 탄탄한 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금까지 일해왔던 자세와 방식으로는 변화된 환경을 이겨내기 어렵다고 말하며 기념사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을 전했다.

먼저 공장부문에는 ‘1등 경쟁력 확보’를 주문했다. 김 대표는 판매 제품의 단가와



원자재 가격은 우리 힘으로 좌우할 수 없지만 원가경쟁력은 온전히 우리의 땀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며 끊임없는 혁신과 개선을 통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다.

영업부문에서는 신시장 확보, 전문화된 제품 개발 등을 통해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으며, 전 구성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급변하는 시장 트렌드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의 목표와 비전을 제대로 이해하여 일 자체의 가치를 깨닫고 일에 대한 즐거움을 느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대표는 이렇게 말하며 ‘각자가 주인공이 되어 맡은 바 업무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핵심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나갈 승리의 역사

“협력사를 포함하여 245명의 인원이 땀 뭉쳐 세아씨엠의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나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세아씨엠의 일원으로서 오세연 직장이 앞으로의 다짐을 전했다.

‘재작년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통해 현장의 로스를 현격하게 줄였습니다. 앞으로도 원가를 낮추고 로스를 개선하는 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 업계 1등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혁신팀의 이선구 팀장 역시 이같이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업무지원팀 정명재 팀장도 ‘외형적 규모보다는 판재시장에서 1등 경쟁력을 가진 내실 있는 회사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강당에 모인 세아씨엠 임직원들은 ‘일을 통한 인류사회 기여, 고객만족을 위한 최선의 노력, 1등 원가경쟁력 달성을 위한 끊임없는 개선 활동,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는 한가족 경영’ 등을 한 목소리로 결의했다.

군산공장의 외벽도, 출입구 사인도 모두 세아제강에서 세아씨엠으로 이름표를 바꿔 달았다.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향한 마음의 준비도 끝났다. 세아씨엠의 이름으로 써내려갈 찬란한 역사가 이렇게 시작됐다.

‘용솟는 힘과 용기, 펼쳐지는 우리의 지, 창의력과 도전으로 새 세계를 열어간다~’. 사가를 제창하는 세아씨엠 임직원들의 노랫소리가 힘있고 묵직하게 울려 퍼진다.



미래 인재를 향한 첫 발걸음

2017년 하반기 그룹 신입사원 입문교육

신입사원들의 첫 사회 생활의 시작인 입문교육이 에스원 천안 연수원에서 진행됐다.

새롭게 세아의 가족이 된 신입사원들의 열정과 패기 넘치는 교육 현장을 세아가족이 찾아갔다.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신입사원

세아는 지난 7월 3일부터 14일까지 세아 제강 13명, 세아베스틸 5명, 세아특수강 5명 등 총 3개사 23명의 하반기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입문교육을 실시했다. 신입사원들은 8박 10일간의 합숙 교육을 통해 핵심가치와 조직문화를 체득하며 세아인으로서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번 교육은 신입사원으로서 갖춰야 할 직장 생활 및 업무 기본기를 익히고, 올바른 직업의식을 갖춘 미래 인재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했다.

세아의 가치와 조직문화 체득에 초점

1주차 교육은 사전 학습 과정으로 구성됐다. 신입사원들은 5개 조로 나뉘어 각 팀의 의지를 담은 포스터와 10년 후 그들이 희망하는 세아의 모습을 담은 철강신문을 제작했다. 각자의 비전 선언문을 써넣은 23개의 책 조명등도 만들어졌다. 세아 50년사 도서 학습과 골든벨 형식의 퀴즈

게임을 통해 세아의 역사와 핵심가치, 준법 경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신입사원들은 LETS 프로그램을 통해 각자의 취미와 관심 분야에 대해 저마다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며 다양한 지식을 공유했다. 이번 교육을 주관한 세아홀딩스 인재개발팀의 황혜정 대리는 LETS 프로그램에 대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식을 공유하고 연결하는 배움의 품앗이 시스템'이라고 소개하며 집단 지성을 통한 창조성 함양에 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사가(社歌)에 담긴 세아의 역사와 가치를 이해하고 내재화하는 The Sound of SeAH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했다. 신입사원들은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며 사가의 파트별 화음과 안무를 익혔다. 한편,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운영된 세아애(愛)인 시간에는 세아제강 조영빈 이사, 세아특수강 김한준 이사, 세아창원특수강 박건훈 이사가 초대되어 자신들의 직무 경험을 바탕으로 일에 대한 가치, 업무 수행 시 지녀야 할 마음과 자세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프로 의식을 갖춘 미래 인재를 향해

2주차 교육에서는 재무/회계에 대한 이해와 문제해결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례 및 실습 중심의 교육이 운영됐다. 비즈니스 상황별 대인관계 및 소통 전략을 비롯하여 경영환경에 따른 의사결정 및 미션을 수행하는 모의 경영 시뮬레이션도 교육 과정에 구성됐다. 선배와의 대화 시간에는 세아제강 이승천 과장, 세아베스틸 권태영 과장, 세아특수강 금기철 과장 등 그룹 핵심 인력으로 양성된 챌린지 리더들을 초청해 현업 생활의 노하우와 갈등상황 극복 사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프로 세아인의 미래설계’ 시간에는 세아홀딩스 인재개발팀 이규웅 수석이 강사로 나섰다.

“여러분이 선택한 직장에서 가슴 뛰는 일을 찾으십시오. 그 일을 여러분 평생의 일로, 계속해나가야 할 가치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규웅 수석은 이렇게 말하며 신입사원들에게 조언을 전했다.

철든 어른, 전문가, 마라토너가 되어주길

“세아의 한 가족이 된 것을 축하 드리고, 세아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아제강 이휘령 사장은 CEO 특강을 통해 신입사원들에게 환영의 뜻을 밝히며, 세아와 맺은 인연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좋은 회사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휘령 사장은 신입사원들이 지닌 다양한 빛을 더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세아의 성장을 위해 각자의 빛을 한 방향으로 모아 줄 것을 주문했다.

“컬링 경기에서 스톤을 던진 후, 그 스톤이 목표 지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스윙핑 하듯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방향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휘령 사장은 이렇게 말하며 ‘스스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하는 철든 어른’이 되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세아의 미래를 견인할 신입사원들에게 ‘열심히 질문하고 오래 고민하여 전문가가 될 것’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멀리 보고 오래 될 수 있는 마라토너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신입사원들은 그간 매일 연습한 사가를 제창하며, 값진 이야기를 들려준 이휘령 사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초심 지키며 실력을 쌓아나가겠습니다

“입사 전 1차 면접 당시, 면접관 분들이 지원자들에게 각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껏 취업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면접을 진행하는 곳은 처음이었고, 사람을 존중

하고 배려하는 기업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세아제강 군산 강관공장 생산팀 임민혁 사원은 ‘예전부터 호감과 관심을 갖고 있던 기업에 입사한 만큼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세아제강 수출1팀 김운동 사원도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실력을 갖춘 수출인으로 성장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전했다.

“세아에(愛)인 시간에 들은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주시하고, 정확한 수치를 기반으로 말하는 연습을 하라’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세아베스틸 기술연구소 고객기술지원센터 김철민 사원은 연구원 생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준 박건훈 이사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다.

“정말 가고 싶던 회사, 원하는 직무에 배치가 되어 무척 기쁩니다.”

세아특수강 선재영업팀 김영범 사원은 이렇게 말하며,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 입사지원서를 핸드폰에 저장하고 다닌다는 세아특수강 금기철 과장의 이야기처럼 자신도 지금의 초심을 오래도록 지켜가겠다고 다짐했다.

입문교육 과정을 수료한 신입사원들은 각 사의 자체 교육을 거쳐 현업 부서에 배치됐다. 이들 모두가 각자의 재능을 발휘하며 미래 세아의 성장을 이끌어 나갈 프로 인재로 성장해나가길 기대해본다.





창립 제30주년 기념식 및 체육대회(1990년)

출근길도, 퇴근길도 웃으면서 즐겁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세아의 발자취

빠르고 거센 산업화의 물결, 바쁘고 고된 업무 속에서도 세아는 즐겁고 보람을 느끼는 일터와 직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웃으며 출근하고, 웃으며 퇴근할 수 있는 기업 문화 조성을 위한 세아의 노력. 그 발자취를 이석주 前 세아제강 이사의 이야기를 통해 되짚어본다.

“

세아의 각종 행사, 복지, 인사제도는 ‘사람’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수 있고, 어려운 것도 쉽게 극복할 수 있으니까요. 세아는 직원들이 회사를 믿고, 회사와 동행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었죠. 그런 마음들이 세아의 성장 동력이자 경쟁력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이석주 前 세아제강 이사



이석주 이사는 1987년 부산파이프 총무부 노무과에 입사하여 약 27년간 근무했다. 세아제강 포항공장 관리이사 및 군산 강관공장 공장장을 역임했으며 각종 제도 마련을 통해 회사, 사원, 가족이 동행하는 기업 문화 조성에 힘썼다. 2014년 12월에 퇴직한 그는 세아를 자부심을 갖게 하는 ‘고향’이라고 말한다.

사원 동호회 결성 및 활동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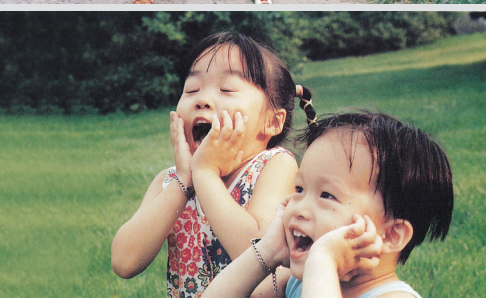
1970년대 후반부터 부산파이프(現 세아제강) 사원들의 동호회 결성 및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이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보조금이 지원되었다. 부산파이프는 사원들의 여가 선용과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자 1977년부터 동호회를 등록받아 연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산악회, 낚사회, 테니스회, 기우회, 여직원회 등 동호회가 결성되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부산파이프는 1977년 3월에 열린

무역진흥 확대회의에서 근로자 복지시설

우수 업체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이를 기념하여 4월 21일에는 본사에서 KBS 직장오락회 공개방송이 열렸다. 이후로도 부산파이프는 임직원들의 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포항 공장에 탁구, 축구, 야구, 배구, 사진 동호회 등이 잇달아 발족하여 1990년에 이르러서는 14개 동호회 총 회원 932명에 달하는 규모를 갖췄다. 회사는 이들 동호회에 총 1,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조직 건강 위한 설문조사 실시

1988년 4월, 부산파이프는 한국갤럽연구소에 의뢰하여 조직건강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여론조사는 2000년대를 겨냥한 부산파이프의 바람직한 사풍과 기업문화의 좌표 설정, 노사 화합, 그리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체계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사무직과 현장 사원 450명을 대상으로 바쁜 생산 일정도 멈추어가며 조사가 실시됐다. 업무에 대한 만족도, 회사 발전에 대한 평가,



제1회 사우자녀 백일장 국교부 최우수상
제1회 사우자녀 백일장 유치부 최우수상(1988년)
어린이사진 자랑전(1992년)
부산파이프그룹 가족 대잔치 사진전(1995년)

의사소통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여 작업 환경과 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 및 여가 활용 등 직장 생활 및 가정생활, 개인 생활 전반에 걸친 약 180개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조사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지속적인 가족 친화 행사 마련

1988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제1회 사우자녀 백일장이 열렸다. 부산파이프와 관계회사들의 초등학교 및 미취학 자녀를 대상으로 한 백일장은 그림 부문과 글짓기 부문으로 나누어 시행됐다.

처음 시도한 백일장이라서 얼마나 호응이 있을지 관계자들은 다소 염려했으나, 당초 예상을 훨씬 넘는 많은 작품이 응모됐다. 백일장은 국교부와 유치부로 나뉘어 실시됐으며, 그림 부문에서 해덕강업 기계반 윤병철 사주의 자녀 윤희정 양이 유치부 최우수상을, 해덕강업 생산부 박성관 과장의 자녀 박수현 양이 국교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백일장은 이듬해에도 '사우자녀 솜씨마당'으로 이름을 바꾸어 개최됐으며,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한 전문 심사위원도 초대됐다.

이러한 행사는 1992년 어린이사진 자랑전, 1993년 여름휴가사진 큰잔치, 1995년 부산파이프그룹 가족 대잔치 등으로 이어지며 임직원 및 가족들이 멋진 솜씨를 뽐내는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부산파이프의 가족 친화적인 기업 문화 조성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복지, 단합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

1989년 부산파이프 서울공장 복지관이 청와대로부터 우수새마을직장으로 선정됐다. 이를 계기로 리모델링을 실시, 1989년 3월에 개관하였다. 또한 부산파이프는 직원들의 쌓인 피로 회복을 위해 서울공장 포항공장에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목욕탕 시설을 갖추었으며, 부산영업본부에도 15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목욕탕을 운영하였다.

직원들의 체력 단련과 여가 선용을 위한 체육시설로 서울공장에는 1,200평 공장내 공지를 이용하여 테니스장 4코트, 배구장 2코트, 배드민턴장 2코트, 족구장 2코트, 3대의 탁구시설을 구비하였다. 포항공장은 724평의 터에 테니스장 2코트, 배구장 1코트, 5대의 탁구시설을 갖추었으며, 부산영업본부도 배구장과 탁구대 등을 갖추어 직원들에게 개방하였다.

1989년 4월 말과 5월 초, 두 차례에 걸쳐 각 1박 2일의 전 직원 단합대회가 열렸다. 단합대회는 신라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고도 경주에서 실시됐으며 부산파이프 포항, 부산 지역의 임직원 640명이 참여하여 뜨거운 동료애를 나눴다. 이 단합대회에서는 토함산 정상 정복을 목표로 라인 OL 훈련을 비롯하여 각자의 목표와 소망을 기록한 돌맹이를 토함산 정상에 쌓아놓는 프로그램도 진행되었다. 또한 단합을 상징하는 캠프파이어 불꽃을 피워 올리며 모든 직원들이 어우러져 뜻 깊은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KBS 직장오락회 공개방송(1977년) / 부산파이프 야구동호회(1980년대)



직원 단합대회(1989년) / 창립 제30주년 기념식 및 체육대회(1990년)

행복한 일터 조성 위한 꾸준한 노력

부산파이프 본사에서는 1990년 6월 4일부터 매일 아침 일과 시작 5분 전에 '출발 5분 전'이라는 명언, 명시 테이프를 사내 방송했다. 이 방송 프로그램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차분히 그날 하루를 계획하고 정리해 봄으로써 하루를 힘차게 일어나가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명언, 주말인 토요일은 명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매일 5분씩 총 60회에 걸쳐 방송됐다.

1990년 11월 3일에는 부산파이프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제1회 부서대항 탁구

대회가 개최됐다. 대회는 임원들의 시범경기와 각 부서별 남자복식 및 여자복식, 혼합복식 등 여러 종목의 경기가 펼쳐졌다. 1993년에 열린 부산파이프 및 계열사 친선 볼링대회에서는 부산파이프 다사랑볼링회, 텔코 한마음볼링회, 해덕볼링회 등 계열사 볼링팀이 참가하여 평소 같고 닳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다.

1993년에는 포항공장에서 사내 포크댄스 행사가 열렸다. 직원들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연습하는 한편, 단체복을 맞춰 입으며 행사를 함께 즐겼다.

1997년에는 제1회 세아그룹 창원지역 테니스 대회를 개최하며 세아 가족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회사 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세아제강은 직원들의 건의에 따라, 포항공장 내 빔 프로젝트를 설치하고 우리나라 경기가 있을 때마다 전 임직원이 축구 응원을 함께했다. 축구 응원은 우리나라가 4강에 진출할 때까지 이어졌으며, 2시간 정도 공장 설비의 가동을 멈추고 전 임직원이 함께 한 세아제강의 축구 응원은 포항 MBC에도 소개되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더위 이기는 우리의 열정

SeAH Steel UAE, LLC 판매팀

전 세계 석유산업 및 건설 산업의 메카인 중동은 유럽과 아프리카 시장 확대를 위해서도 전략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이곳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끊임없는 혁신과 성장의 노력을 경주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막의 열기에도 지지 않을 열정을 지닌 이들. SeAH Steel UAE 판매팀에서 보내온 소식을 전한다.

글 SeAH Steel UAE 문정훈 법인장



열사의 나라에서 고군분투 중

마르하바안(아랍어로 안녕하세요)! 우리는 SeAH Steel UAE, LLC(이하 SSUAE) 판매팀입니다. SSUAE 판매팀은 GCC(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의 걸프협력회의의 국가) 및 MENA(메나, Middle East와 North Africa의 합성어) 지역까지 SSUAE에서 생산하는 대구경 강관과 세아그룹의 강관 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차민수 대리과 조승현 사원이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저는 법인장으로서 총책임을 맡아 팀원들과 함께

열사의 나라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서 내의 주요 화두는 UAE와 카타르의 단교 및 저유가 기조로 인해 연기되었던 프로젝트들의 진행 여부입니다.

카타르는 GCC 국가 중 한 곳이지만, 최근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한 주변 국가들과의 단교로 인해 무역 경로가 막힌 상태여서 수출에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종교와 정치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유가는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그간 멈춰 있던 프로젝트들의 순항이 기대됩니다.



역대 2번째로 큰 단일 주문 수주

SSUAE 업무 스타일은 ‘친화력’입니다.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중동 지역은 거의 모든 비즈니스 실무진들이 현지 사람이 아닌 인도계 및 아랍계 외국인들입니다. 판매 활동을 위해서는 이들의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판매팀 구성원들은 매일 고객사를 방문하여 비즈니스 외에도 살아가는 소소한 이야기를 친구처럼 편하게 나누며 자연스럽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여러 프로젝트 수주 기회도 얻고 SSUAE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SSUAE 판매팀에서는 민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비즈니스는 시시각각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경우가 많아 변칙적인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강관 제품을 잘 모르는 고객사도 상당히 존재하기에 가끔은 황당한 질문도 받고, 납품한 제품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불만들도 접수됩니다. 그때마다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첩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SSUAE 판매팀은 수요가의 요구 사항이나 불만을 귀담아듣고, 빠르게 조치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SSUAE가 보유한 원재료 및 현지에서 조달 가능한 원재료를 바탕으로 구축한 납기 대응력은 SSUAE 판매팀만의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민첩성을 겸비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SSUAE 판매팀은 고객사의 신뢰가 주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판매팀은 SSUAE 창립 이래 역대 2번째로 큰 규모의 단일 주문을 수주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재생 에너지용 해상 구조물을 구축하는 기업으로, SSUAE는 이번 수주에서 생산 능력과 민첩한 대응력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내 제조 공장의 지리적 이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실제 조관 및 납품 과정에서도 고객사는 SSUAE의 협조에 상당한 만족을 보였으며, 이후 유사 프로젝트 진행 시에도 상호 적극 협조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인샬라, 라마단 문화에 적응 완료

‘중동’이라고 하면 더위부터 떠오르시겠지만, 판매팀 활동에서 더위보다 어려운 점이 아랍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입니다. 아랍권의 비즈니스는 ‘인샬라(아랍어로 만약 신이 원하신다면)’ 문화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고 이에 따른 리스크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대부분 담당자가 외국인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잦은 이직 등으로 인해 지속 가능한 관계 구축이 어렵습니다.

이슬람 문화의 특징 중 하나가 라마단인데, 실제 라마단 기간은 약 1개월이지만 전, 후로 짧게는 2개월, 길게는 3개월 이상 비즈니스 진행이 어렵습니다. 금식 외에도 이 기간 중 대부분의 의사 결정권자들이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워 업무 공백이 큼니다.

SSUAE에도 외국인 직원들 중 무슬림이 약 10명 가량 있는데, 라마단 기간에는 이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야간으로 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영업 직원들은 라마단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함께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라마단 기간 중에는 음식점도 대부분 문을 닫지만, 문을 연 음식점에서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라마단 문화에 익숙해진 터라 식사에 대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영업이익 실현 위해 총력 기울일 것

2014년 말부터 유가 하락으로 중동의 모든 프로젝트들이 지연 또는 취소되면서 전반적인 사업시황이 악화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최근까지도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SSUAE는 가까운 미래에 한걸음 도약할 수 있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준비하고 이행해왔습니다. 안전환경 OHSAS 18001/ISO 14001 인증과 유럽 CE 마크 인증 등 주요 국제인증을 획득했고, UAE 내 모든 주요 벤더 등록을 마무리하였으며, 이란 시장 진출을 위해 통합 벤더 등록도 마쳤습니다. 생산부문에서는 2015년 11월 창립 이래 누적 생산량 100,000톤을 달성하였으며,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

노력으로 2017년 5월에는 최대 조관 생산량 7,200톤을 달성하는 등 많은 성과를 토대로 내실을 다졌습니다.

판매팀 역시 이러한 내실을 바탕으로 영업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에 가용한 모든 정보와 노력을 총동원하여 영업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세아인들이 사막 한가운데 피땀 흘려 일군 SSUAE입니다. 앞으로도 즐겁게 일하며 더욱 성장하는 SSUAE의 모습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더운 날씨지만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SeAH Steel UAE 판매팀

판매팀 담당자들이 아랍에미리트의 문화 및 관광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문정훈 법인장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가 생활신조입니다. 만약 UAE에 여행을 오신다면 UAE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인 Jebel Ha-feet를 추천합니다. 이곳은 가는 길이 아름답다 하여 세계 100대 드라이빙 코스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SSUAE는 ‘기회’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각자의 꿈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어, 전 세계의 축소판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UAE에서 세아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나겠습니다.



차민수 대리

나홀로 여행하며 사진 찍는 것이 취미입니다. 제 좌우명은 ‘부단히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언젠가 세상이 그대를 잊혀지게 만든다’입니다. 잊혀지지 않기 위해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다짐을 합니다.

UAE 사람들은 업무 속도는 느리지만 운전할 때는 제한 속도를 초과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시속 21km 초과 시, 한화로 약 18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일부 현지인들의 경우 라마단 기간이나 연말, 연시에 국가에서 해당 과태료를 감면해주기 때문이죠.



조승현 사원

제 좌우명은 ‘인생을 노래하듯이 아름답게’입니다. 긍정적인 사고가 긍정적인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SSUAE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시작할 때는 지치고 힘들지만 순간의 끈기와 노력들이 모여 언젠가는 완주할 수 있듯, SSUAE에서도 작은 결실들을 이루어 큰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해나겠습니다.

UAE에 스카이다이빙 명소가 있습니다. 두 바이의 멋진 광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하니 UAE에 방문하시면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과의 비결은 끝까지 하는 힘

세아특수강 충주공장

세아업적상 기술개발부문 금상 수상 TF팀

세아특수강 충주공장에는 뭔가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일까?
벌써 몇 년째 세아업적상을 놓치지 않는 성과의 비결은 무엇일까?
그 답을 듣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곳을 찾았다.

회사 성장에 기여한다는 기쁨

남들은 평생 한 번 받기도 어려운 세아업적상을 4년 연속 수상한 세아인이었다. 세아특수강 충주공장 이종탁 공장장이 그 주인공이다.

“설비부문의 일을 맡아서 하다 보니, 아무래도 어떤 문제를 개선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내고, 현장에 접목하는 데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4년 연속 세아업적상 수상의 비결을 묻자 이종탁 공장장의 겸손한 대답이 돌아온다.

이종탁 공장장을 비롯해 생산팀 이창호 차장, 품질보증팀 안일환 대리, 안전환경설비팀 김기범 대리는 새로운 산세 피막 방법 도입으로 연초 신년회의에서 세아업적상 기술개발부문 금상을 거머쥐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큰상을 주시니 영광입니다.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경영환경에서 회사 경쟁력 향상에 일조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쁩니다.”

김기범 대리가 담담한 목소리로 수상 소감을 전한다.

CHQ 와이어 미산세 문제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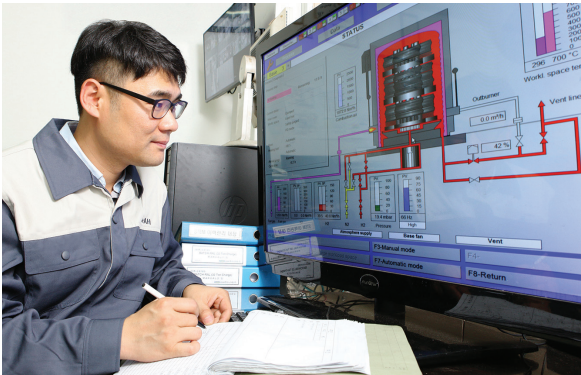
“재료를 그대로 침전시켜 자연스러운 화학 반응을 이끌어내는 기존 산세 방식에 반응을 촉진시키는 새로운 방식을 추가로 도입하였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창호 차장의 설명이다.

산세는 선재 압연 시 발생된 금속 소재 표면의 불순물인 스케일이나 녹을 염산을 이용해 제거하는 공정. 기존에는 염산액에 재료를 일정 시간 동안 담그는 방식으로 이 공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여러 겹으로 권취되어 있는 선재 제품의 특성상 기존 방식으로 선 겹침 부위까지 완벽한 산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작업시간을 필요로 했다. 이종탁 공장장과 팀원들은 작업 효율성은 물론 완벽한 산세 공정을 구축하고자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거듭한 결과, 염산액이 재료의 미세한 부위까지 균일하게 침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고안해냈다.

소재 표면에 피막을 형성시키는 방식도 달라졌다. 신규 침적 기술을 적용함에 따라 피막 부착량이 증가했으며 밀착성도 향상됐다. 균일한 피막 형성 등의 탁월한 품질 개선 효과도 얻었다.





“피막 형성 과정은 금속 소재 표면에 윤활층을 형성하여 수요가의 냉간단조 가공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공정입니다. 피막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단조 가공 시 제품이 찌그러지거나 눌림 자국이 발생하는 등 불량 발생 우려가 있죠.”

CHQ 와이어 제품의 산세 피막 품질은 단조 가공 생산성과 직결된다고 이종탁 공장장은 말한다. 판매량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수요가들의 산세 피막 품질에 대한 요구 수준도 높아졌다. 그런 점에서 세아특수강의 신규 산세 피막 기술 도입은 차별화된 품질을 확보하고 고객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지속적으로 내수 시장을 수성할 수 있는 절대우위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장환경 속에서 세아특수강만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땀을 믿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국내 최초’라는 말은 기존 데이터도 없고 정보를 아는 사람도,



해당 설비도 없다는 뜻. 따라서 금번 세아특수강의 산세기술은 설비의 독자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처음부터 하나씩 알아가는 게 힘들었습니다. 샘플 테스트 결과가 예상대로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서 안정적인 결과를 얻기까지 무수히 많은 테스트를 반복했습니다.”

품질 담당의 안일환 대리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며 당시의 고충을 토로한다. 설비파트를 담당한 김기범 대리도 많은 시간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고 말한다.

“기존 생산 설비에서 새로운 기술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했습니다. 생산라인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기에 시간과의 싸움도 필요했죠.”

위험 물질을 다루는 설비인 만큼 안전을 고려하여 구조물을 보강했다.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설비 안정화를 이루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며 김기범 대리는 그 순간을 떠올려본다.

한편 이창호 차장은 프로젝트가 성공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중도에 포기할 뻔 했다고 회고한다. 하지만 그는 ‘땀을 믿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의 사자성어, 신한불란(信汗不亂)을 가슴에 새기며 위기의 순간들을 견뎠다. 이제 그는 ‘포기보다 실패가 낫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추진하길 잘했다’라며 미소를 짓는다.

이종탁 공장장 역시 직원들과 충주공장 임직원들에게 ‘한번 더 해봐’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품질 테스트나 설비 개선안 진행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부담감과 좌절감을 느끼기 마련이지만 ‘한번 더’ 해 봄으로써 다시 자신감을 갖고 도전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고 그는 강조한다.

열정만 있으면 성과는 따라오기 마련

“현재 철강산업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이런 환경 속에서 가장 확실하게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은 최고의 품질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고객과의 신뢰를 지켜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창호 차장이 이렇게 말하며 앞으로도 고급 강종 개발, 수요가 중심의 마케팅을 통해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각오를 전한다. 중국 철강 구조조정, 4차 산업혁명, 전기차 시장 성장 등 많은 변화가 일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수요 성장 정체로 인해 공급 과잉 해소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 세아특수강은 선제 업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종탁 공장장과 직원들은 여기에 안주할 생각이 없다.

“개선의 필요성을 알고, 실천을 거듭하다 보면 성과는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을 수차례 경험으로부터 체득해 왔습니다.”

관심과 열정만 가지면 우리 주위에서 기술 개발 아이디어를 얼마든지 찾아내고,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힘주어 말하는 이종탁 공장장. 그와 직원들이 또 어떤 성장을 만들어나갈지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동료에 더하기 우정 세아 FS 마케팅팀 강정호, 이기동 직원

같은 날 입사한 동기다.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같은 동호회에서 활동하며 취미까지 공유하는 두 사람. 때로는 형제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서로를 응원하며 우정을 쌓아가는 세아 FS 마케팅팀의 강정호, 이기동 직원을 만나 그들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 들어본다.

왼쪽 세아 FS **이기동** 직원 오른쪽 세아 FS **강정호** 직원

간단한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강정호 직원(이하 강) 지난해 5월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신규 고객 개발, 해외 법인 지원, 시장조사 등을 맡고 있습니다.

이기동 직원(이하 이) 저도 세아 FS 마케팅팀에서 영업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해외 법인 매출관리, 채권관리 등이 주요 업무이며, 입찰 대응, 시장조사, 신규 업체 개발도 맡고 있습니다. 관리 업무의 특성상 작은 숫자에 민감해야 할 때가 많아

힘들기도 하지만, 그 작은 숫자 하나하나가 모두 큰 의미를 갖고 있어, 이를 분석해 나가는 데 재미와 보람을 느낍니다.

두 분 다 볼링 동호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볼링은 어떤 매력이 있나요?

강 사람들과 어울리기에 더없이 좋은 스포츠라고 생각하여 입사 후 곧바로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친목을 다지기에 볼링만한

운동이 없죠. 다른 운동에 비해 체력 소모도 적은 편이고요. 자칫 경직되기 쉬운 업무 분위기에 잘 적응하고, 직장 동료들에게 좀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도 볼링의 도움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 입사 전부터 운동 동호회 하나 정도는 가입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현재 동호회 회장님인 이종원 대리님의 가입 권유를 받고 주저 없이 멤버가 되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볼링의

매력은 '내 뜻대로 될 것 같으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뜻대로만 되도, 반대로 너무 안 되도 재미없으니까요. 실제로 볼링은 스트라이크를 친 후 감을 잡았다고 느끼다가도 스페어 처리를 못하거나 심지어 홈에 볼이 빠질 때가 많거든요. 회사 동호회에는 자세를 코치해주는 분들도 있고, 각기 다른 부서에 계신 분들이 모이다 보니 업무 노하우, 고객사 성향 등 볼링 이외의 정보들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상대에 대한 인상은 어땠나요?

강 깍듯하고 붙임성이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도 스스럼없이 편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며 저에게 부족한 부분을 지닌 이기동 사원이 부럽기도 하고, 배워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2명만 뽑는 신입사원 채용에 최종 선발되어 처음 만나게 됩니다. 서로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면서 강정호 사원이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주말마다 마라톤을 뛰고,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다양한 모임 활동에 참가하는 정호 씨는 처음 본 그 모습 그대로 '멋진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절친이 된 계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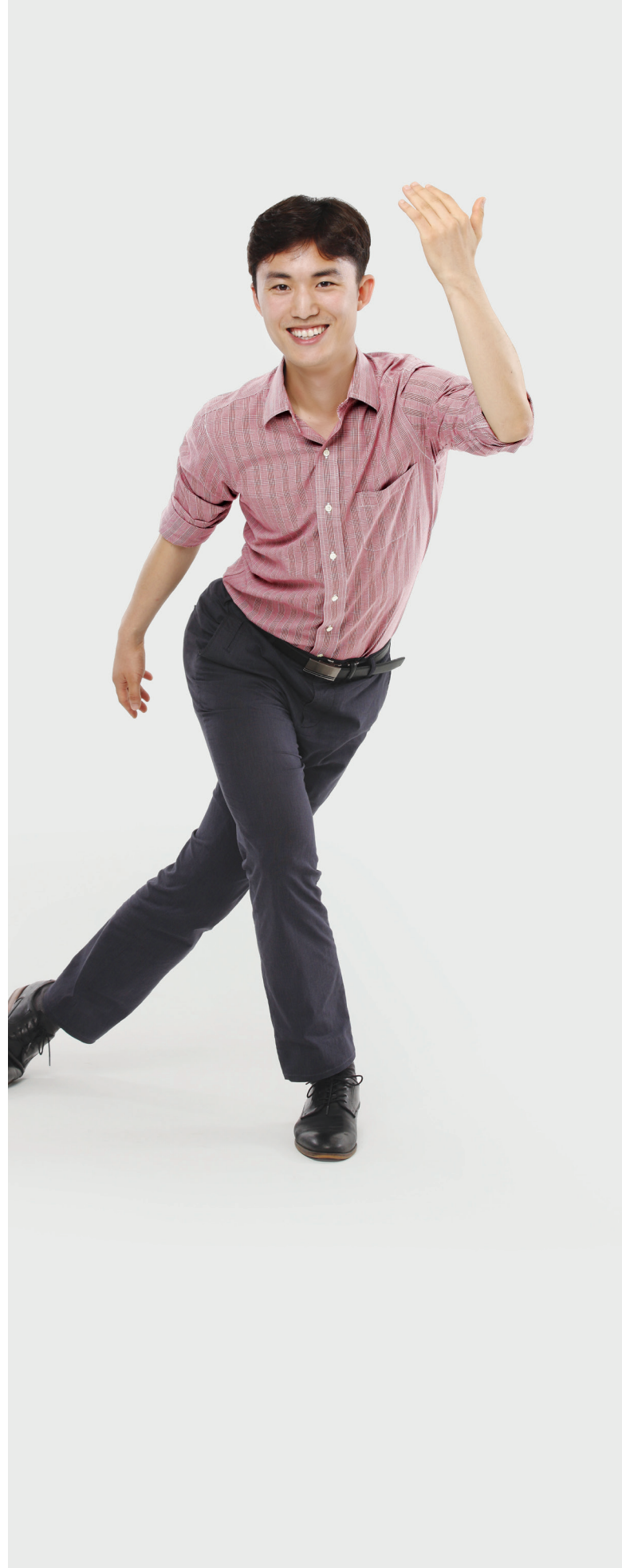
강 입사동기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진 것 같습니다. 이기동 사원과는 서로 표현 방식이나 성격은 다르지만 마음이 잘 맞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어주는 친구죠. 볼링 동호회도 '당연히 함께 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같이 가입했구요.

이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함께 공장 투어를 간 적이 있습니다. 현장 직원 분들과의 술자리에서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시게 됐는데, 취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저를 강정호 사원이 잘 챙겨줬죠.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볼링 동호회에서도 잘하면 서로 칭찬하고, 못 하면 응원 과 격려를 건네며 사이가 더욱 돈독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상대방을 소개하신다면?

강 웃음이 많은 친구입니다.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데 있어서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죠.

이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바쁜 일상에서도 주변 사람을 챙길 줄 알고, 차 한잔의 여유를 갖도록 도와주죠. 정이 많고 상대방을 잘 배려하는 강정호 사원 옆에서 저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볼링 실력은?

강 점수 기록이 원체 심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동호회 정기 모임이 있는데, 평균 점수가 40점이 나올 때도 있고 180점이 나오기도 합니다. 두 손가락만 사용하여 볼링 공에 스핀을 넣을 수 있는 것이 자랑이라면 자랑이죠.

이 정식으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볼링 치는 자세나 점수 모두 평균 이하인 것 같습니다. 아직 입문 단계라 특별히 자신 있는 기술도 없고요. 가끔씩 손가락에서 볼이 잘 빠지지 않아 공을 하늘로 던졌다가 '쿵'하고 떨어뜨려 상대 플레이어를 놀라게 하기도 합니다.

동호회 활동을 함께하면서 겪은 즐거운 에피소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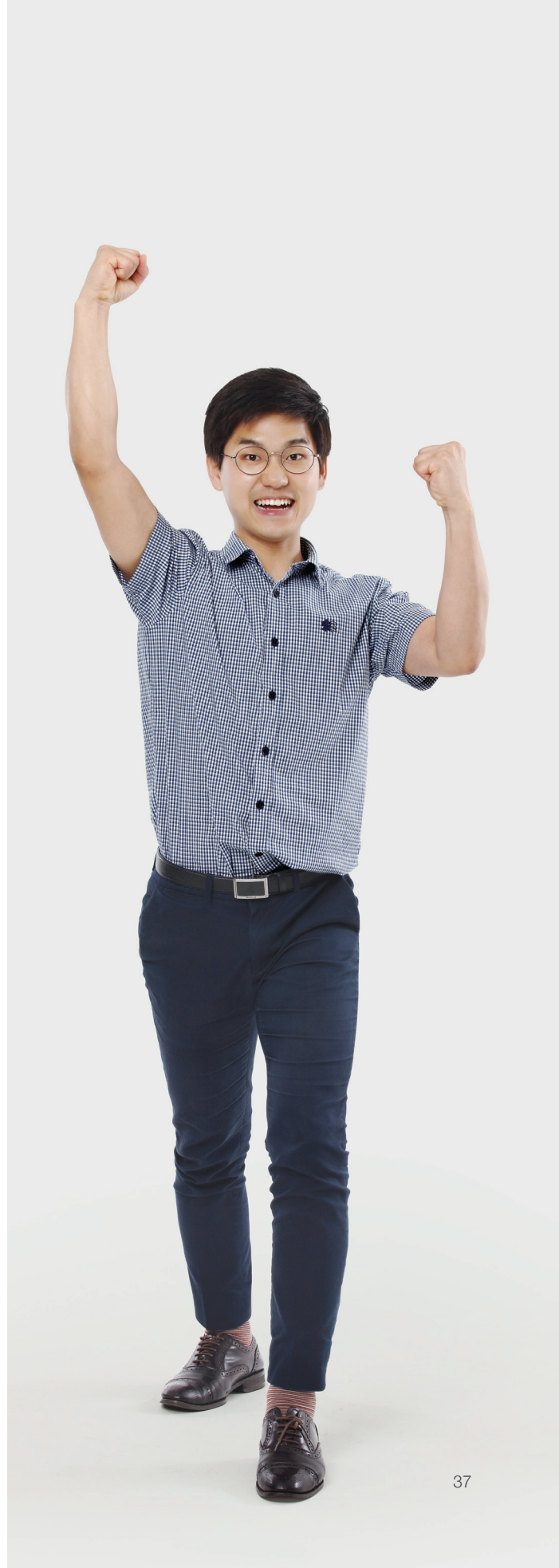
강 볼링 동호회에서 '라면 쟁탈전'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라면 1박스가 걸려있는 우리만의 대회였죠. 스트라이크를 치면 라면 5개, 스페어 처리를 하면 라면 3개를 얻고, 갖고 온 라면이 모두 소진되면 다른 사람의 라면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처음엔 개인전, 그 다음엔 팀을 나눠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모두가 열중하여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죠. 거창한 상금이나 상패 없이도,소한 일상을 함께하며 큰 즐거움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무척 뜻 깊게 여겨졌습니다.

이 저도 경쟁 심리가 발동해 정말 이를 악물고 했습니다. 덕분에 첫 게임에서는 20개 이상의 라면을 획득했죠. 하지만 다음 게임에서 부진한 결과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끝나고 아쉬워하는 저에게 정호 씨를 비롯해 다른 분들이 라면 기부를 해주셨고, 저는 흐뭇하게 그 라면들을 봉지에 담지도 않고 집까지 갖고 온 기억이 있네요.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칭찬과 조언 한마디씩해주세요.

강 기동 씨! 늘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고 큰 힘을 얻곤 해. 말로 표현한 적은 없지만 힘들 때 도와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서로 축하해주는 네가 있어서 정말 고맙다.

이 정호형! 형을 알고 같이 일한 지 이제 갓 1년을 넘었지만, 마치 10년을 알고 지낸 친구처럼 항상 따뜻하게 대해 줘서 정말 고마워. 앞으로도 지금 같이 형제처럼 지냈시다!



정다운 손길, 따뜻한 진심

세아제강 사원 부인회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고운 마음에 하늘도 감복한 것일까?

연일 40℃에 가까웠던 더위가 모처럼 내린 비로 한풀 꺾였다.

산뜻해진 날씨 속에 세아제강 사원 부인회가 지적 장애인들을 위해 배식 봉사에 나섰다.



남편 회사 이름으로 아내들이 모였다

오전 11시, 장애인보호센터 ‘예티쉼터’로 사원 부인회 회원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세아제강 사원 부인회’의 이름이 새겨진 연두색 앞치마를 꺼내 입자마자, 배식 봉사 준비에 이들의 손길이 이내 분주해진다.

“세아제강 사원 부인회는 이름 그대로 세아제강에 근무하는 사원 부인들의 모임이에요.”

모임의 회장인 김영자 씨(세아제강 소경공장 송선복 사원 부인)가 말한다.

‘각자 다른 곳에서 봉사 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이름으로 부인들도 의미 있는 일을 해보면 어떨까?’ 전 회장인 이상애 씨의 제의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원 부인들이 뭉쳤다. 2005년 11월, 10여 명의 창립 멤버들은 조그마한 식당에서 사원 부인회의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봉사 활동을 시작했다.

봉사는 이제 행복한 일상

현재 사원 부인회 회원은 모두 19명. 이 가운데에는 남편의 퇴직 후에도 계속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도 있다. 현재 사원 부인회 회원들은 2인 1조로 순번을 정해, 주 1회씩 돌아가며 포항의료원에서 매일 방문객 안내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글을 잘 읽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건강검진 문진표 작성도 돕고 있다. 학생들이 단체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면 의료원이 복잡해지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시키는 것도 사원 부인회가 하는 일.

이 밖에도 건강검진 결과지 우편물 발송 등 다양한 검진센터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매월 세 번째 토요일에는 예티쉼터에서 장애인들에게 점심 배식 봉사를 한다. 예티쉼터는 지적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사회복지기관으로, 사원 부인회 회원들은 이곳에서 배식뿐만 아니라 식사가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직접 밥을 먹여주기도 하고, 식사 후 마무리 설거지까지 하고 있다.

꼭꼭 씹어 먹으라며 장애인들의 등을 두드려주거나 그들과 웃으며 하이파이브를 나누는 손길이 정답다.

“12년째 이곳을 찾다 보니, 이곳 친구들도 저희를 해맑은 얼굴로 반갑게 맞아주곤 해요. 그 모습에 더 힘이 나고 보람을 느끼죠.” 박애경 씨는 예티쉼터에 올 때마다 ‘마음이 저절로 따뜻해지고 마냥 행복해진다’고 말한다.

김지영 씨도 ‘이제는 봉사하는 일이 일상이 됐다’고 한다.

“이제는 봉사를 하지 않으면 뭔가 허전해요. 사원 부인회 활동을 통해 내 생활이 채워지는 느낌이지요.”

세아제강이 지원하는 따뜻한 한 끼 식사

이날 봉사 활동에는 세아제강 다물단 회원 13명도 함께했다. 이들은 세아제강 식당에서 만든 밥과 국, 반찬을 나르는 일부터 예티쉼터 내 생활관 청소와 빨래 등을 도왔다.

“회사 업무가 바쁠 때는 마음이 있어도 봉사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서 사원 부인회 분들이 큰 힘이 됩니다.”



세아제강 업무지원팀 이인호 과장이 이렇게 말한다.

매월 1회, 세아제강 포항공장에서는 사원 부인회의 예티킴터 배식 봉사를 위해 음식을 지원하고 있다. 소시지 야채볶음과 계란찜, 미역국 등 장애인들이 소화하기 좋은 부드러운 메뉴 위주로 영양까지 꼼꼼히 따져 조리한다.

“처음 예티킴터 봉사를 시작할 무렵,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데리고 외식을 하는 게 힘들다며 킴터 원장님이 종식 지원을 부탁했어요. 세아제강에 이러한 고충을 전하고 도움을 청했더니 흔쾌히 수락해주셨죠.”

사원 부인회 회원들은 ‘이곳 친구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세아제강에 고마움을 전한다.

손발 척척 맞는 즐거운 봉사 활동

포항시 봉사동아리연합회와 함께 중앙상가 정화 활동에 나서기도 하고,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의 일을 돕는 등 사원 부인회 회원들은 다양한 봉사 활동에 참여해 왔다. 포항시의 수많은 봉사단체 가운데에서도 세아제강 사원 부인회는 오랫동안 봉사 활동을 이어온 전통 있는 단체로 이미 정평이 나 있다.

“서로 마음이 잘 맞아야 봉사 활동도 오래 이어갈 수 있어요.”

김지영 씨가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의 팀워크를 강조한다. 그런 점에서 사원 부인회 회원들은 손발이 척척 맞는다. 남편들이 세아제강이라는 한 지붕 아래 근무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아내들끼리도 쉽게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사원 부인회 회원들의 설명이다. 가족이 함께 봉사할 수 있고,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해 좀더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세아제강에 대한 애정이 더 쌓인다는 것. 그런가 하면 정영희 씨는 봉사 활동을 오래 이어나갈 수 있는 비결을 ‘즐거움’이라고 말한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하는 일도 아니고, 희생도 아니에요. 본인이 즐겁고 만족해야 봉사도 오래 할 수 있죠.”

처음에는 아는 얼굴 하나 없는 사원 부인회에 가입하는 것을 주저했다는 영희 씨는 올해로 4년째 봉사 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엄마처럼 봉사하는 사람이 될 거야’라고 말하는 아들을 보며 ‘더 열심히, 잘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됐다고 그녀는 말한다.

남편이 퇴직한 후에도 줄곧 사원 부인회 활동을 함께하고 있는 강희자 씨 역시 ‘이 즐거움은 봉사 활동을 해본 사람만이 안다’고 강조한다.



세아의 이름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물론 몸이 아픈 환자나 지적 장애인들을 상대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다. 가끔 소통이 어려운 분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막무가내로 자신을 먼저 챙겨달라고 요구할 때는 난처할 때도 있다. 특히 정신연령이 2~3세 정도 밖에 안 되는 예티킴터의 지적 장애인들은 우발적인 행동을 하거나 손으로 음식을 집어가기도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원 부인회 회원들은 ‘늘 더 못 챙겨주는 것이 미안하다’고 말한다.

정년 퇴직을 앞둔 남편들이 늘어나면서 회원수가 줄어들어 봉사 활동이 중단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된다.

“사원 부인회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어요.”

누구나 마음만 있으면 좋은 일을 즐거이 함께할 수 있다고, 김영자 회장은 사원 부인회의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이렇게 당부한다.

“나만이 아닌 남편과 자녀, 가족 모두가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마음 따뜻한 세아 가족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아의 이름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앞장서고 싶다는 사원 부인회 사람들. 이들의 눈빛과 표정이 진지하고 따뜻하다.

행복한 가족 여행을 꿈꾸며 가족 여권 케이스 만들기

세아 L&S 철근영업팀 오영민 직원 가족



세아 L&S 철근영업팀의 오영민 직원이 어머니와 함께 여권 케이스를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늘에 구멍이 났다’는 표현이 제격인 날. 폭우에도 불구하고 가족 여행을 꿈꾸는 어머니와 아들의 표정은 ‘종일 맑음’이다.

다정한 모정, 지극한 호심

이번 체험은 냉장고에 붙여진 한 장의 종이 조각에서 시작됐다. “어머니께서 지난달 사보의 ‘세아 L&S 아름다운 숲 가꾸기 행사’ 페이지를 오려서 냉장고에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그간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직장 생활에 대해 묻는 어머니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해 드리지 못했거든요. 말해주지 않는 아들의 직장 생활을 이렇게라도 보고, 간직하고 싶으셨나 봐요.” 올해 3월 세아 L&S에 입사해 철근영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영민 직원. 그는 그 종이 조각을 본 후 어머니와 함께 사보에 직접 출연하기로 마음먹었다. 아들에 대한 걱정과 관심으로 사보를 꼭 챙겨보시는 어머니에게 좋은 추억을 선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세아뉴스 코너에 실린 손톱만한 사진, 여럿이 함께 찍어 누가 누구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사진 속에서도 어머니는 아들의 모습을 찾아냈다. 어머니의 눈에는 수많은 사람 속에서도 본인의 자식을 금세 가려내는 특별한 능력이 숨어있는 게 아닐까? 나이 서른의 장성한 아들이지만 늘 자식을 걱정하는 모정, 그리고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조금이라도 걱정을 내려놓게 해드리고 싶다’는 아들의 마음이 따뜻하게 겹쳐진다.

어머니 말씀대로 평생의 일 찾아

어머니 전해자 씨는 ‘내년이면 환갑’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의 동안을 자랑한다. 적지 않은 나이에도 지역 고용지원센터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있는 열정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그리고 보면 오영민 직원의 부지런함은 어머니를 닮았나 보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인천에서 서울까지 2시간 걸리는 출근길에 나서는 오영민 직원. 늦게 귀가한 다음날에도 어김없이 제 시간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에서 어머니는 ‘지금 딱 잡은



첫 회사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는 아들의 노력’을 읽는다. 입사 소식을 전했을 때도 누구보다 기뻐했던 어머니였다. 높은 취업 문턱으로 인해 그 동안 많이 고생하고 고민했을 아들의 합격 통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다’고 혜자 씨는 말한다. 세 살 터울의 남동생도 함께 합격을 축하해줬다. 대부분의 형제들이 그렇듯 평소에는 별로 대화를 나누지 않는 건조한 관계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열 일 제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이다.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고 누구보다 잘하는 일을 찾아서 그것을 직업으로 삼으렴.”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무렵, 어머니의 이야기는 영민 씨에게 큰 힘이 됐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중국 교환학생, 국제기구 인턴, 창업 동아리 등 다양한 경험을 할 때도 어머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왔다. 영업이라는 평생의 일을 찾고, 세아에 입사할 수 있게 된 것도 어머니 덕분이라고 그는 말한다.

가족의 첫 해외여행 꿈꾸는 만아들

어머니에게 오영민 사원은 '걱정 한 번 끼친 적 없는 든든한 만아들'이다. 대학교 때부터 장학금을 받기도 하고, 스스로 학비를 벌며 용돈 한번 달라고 한 적이 없다.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로

힘들게 벌어들인 돈을 이사 비용에 보태라고 선뜻 내주기도 했다. 그런 아들에게 어머니는 늘 '해준 것이 없이 미안한 마음뿐'이다. "남동생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해외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이제 어엿한 직장인이 된 오영민 사원은 어머니의 첫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여권 케이스 만들기에든 참가 신청을 했다. 첫 월급 기념으로 대부도 가족 여행을 다녀왔고, 한 달에 한 번씩 세 식구가 가족여행을 떠나지만 아직 어머니는 나라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다. 그런 어머니에게 '멋진 외국의 풍경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아들은 씩스러운 표정으로 말한다.

정성이 깃든 고급스러운 가죽 케이스

여권 케이스 만들기 체험을 위해 두 사람이 찾은 곳은 종로구 옥인동에 위치한 <Second Museum>. 천연 가죽을 이용해 가방, 카드지갑 등 다양한 소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곳이다.

특히 오늘 만들기에 사용할 재료는 프랑스산 천연 염소 가죽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고급스러운 느낌이 배가된다는 것이 이날 체험을 지도해주신 선생님의 설명. 어머니의 옐로우색을, 아들은 초록색 가죽을 선택했다.

가장 먼저 패턴대로 가죽을 재단한 후, 각 가죽 조각의 가장자리 부분에 가죽용 접착제를 발라 반듯하게 맞춰 붙인다. 그 다음으로는 그리프 또는 목타라고 불리는 포크 모양의 도구를 이용해 가죽에 손바느질할 구멍을 뚫어준다. 선택한 가죽 색에 어울리는 색상의 실을 고르고 나면 드디어 손바느질을 할 차례. 일반 천 소재보다 두꺼운 가죽을 바느질하기 위해 '새들 스티치'를 배워본다.

새들 스티치는 말 안장을 만드는 기술에서 출발했다고 한다. 가죽과 가죽을 잇기 위해 두 개의 바늘을 교차하여 이중으로 바느질 하는 기법으로, 실이 끊어져도 쉽게 풀리지 않을 만큼 가죽제품의 내구성을 높여준다. 밀랍을 바른 실 양끝에 바늘을 쥔다. 이때 바늘 귀에서 실이 빠지지 않도록, 바늘로 실의 올 사이를 통과 시킨 후 이중으로 매듭을 짓는다.

바느질하는 모습에서 오영민 사원의 차분하고 꼼꼼한 성격이 드러난다. 어머니는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면서도 성실하고, 능률하고, 웃을 때 보조개가 예쁜 아들 자랑을 곁들이느라 두 배로 분주하다. 바느질을 마치면 가죽의 단면에 코팅제를 발라서 마무리한다. 여기에 금박으로 이름 이니셜까지 새겨 넣으면 멋진 여권 케이스 완성! 혜자 씨가 연신 '예쁘게 됐다'고 말하며 만족감을 표한다.

없어서는 안 될 세아인이 되렴

새 여권 케이스를 가지고 가고 싶은 곳을 묻자 혜자 씨는 '발리'라고 답한다. 아들과 함께하는 발리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혜자 씨의 표정이 발그레하다.

이렇게 소년같이 수줍은 어머니지만 아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할

때만큼은 여장부가 된다.

"비와 바람을 견디며 단단한 차들이 만들어지듯 지혜와 인내로 한 단계 한 단계 누구나 인정해주는, 없어서는 안 될 세아인이 되길 바란다."

소중한 여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감싸주는 가죽 케이스처럼, 사회인으로 첫발을 뗀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응원이 든든하고도 포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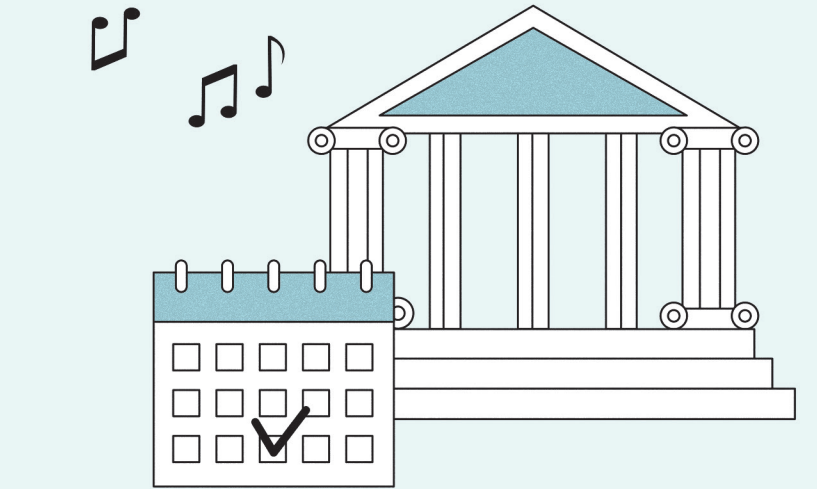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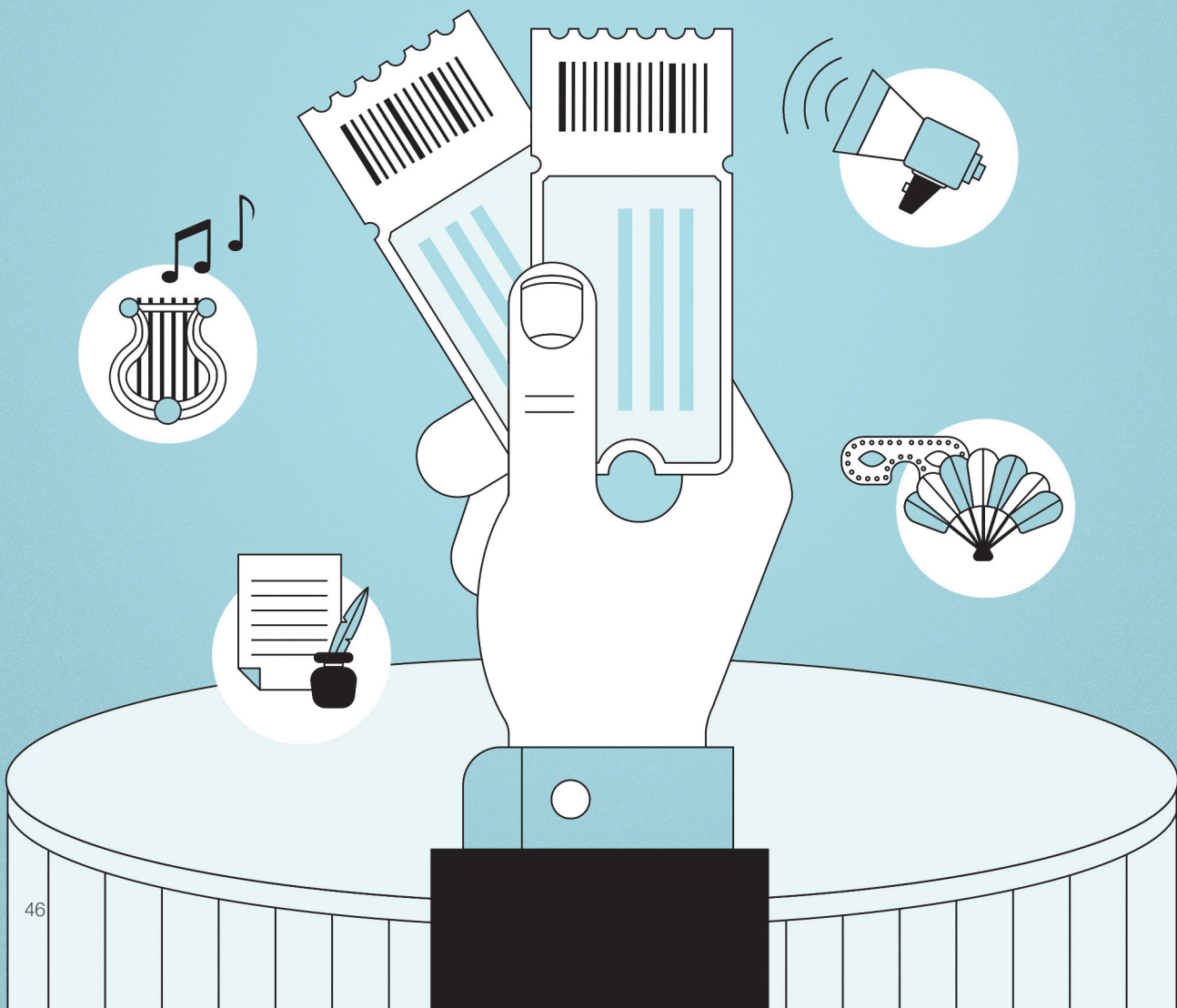


<촬영 협조> Second Museum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2-24 T. 010-6634-1525

지갑을 가격하는 가격 오페라 티켓은 왜 비싼가?

오페라 공연을 예매하기 위해 결제 버튼을 클릭하기 전, 만만찮은 티켓 가격 앞에서 멈칫하고 한숨 지은 경험, 많은 관객들이 해봤을 것이다. 작품의 수준이나 공연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오페라 티켓은 보통 S석 기준으로 10만원을 호가한다. 오페라 티켓은 도대체 왜 그렇게 비싼 걸까?

글 세아이윤형문화재단 홍성인 대리



예상 매출, 제작비 기준으로 티켓 가격 책정

오페라 한 편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공연 무대를 이루는 세트, 조명, 음향 등 기술적인 부분을 이루는 작품 제작비와 연출, 안무, 음악감독, 분장, 의상 담당자 등 스태프의 인건비가 발생한다. 그리고 솔리스트, 합창단, 오케스트라, 무용단 등의 출연료와 공연장 대관료, 홍보 마케팅 및 디자인 비용이 추가된다.

공연 운영에 따른 경비도 발생한다. 창작 오페라의 경우 대본, 음악, 안무 등의 작품 개발비의 비중이 높고, 해외 프로덕션을 들여오거나 해외 성악가들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작품비, 로열티, 체재비 등이 추가된다. 이렇게 제작비를 산출하고 나면 전체 공연 기간에 대한 예상 매출에서 제작비와 세금, 수수료 등의 사후 경비를 제하는 등 손익분기점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공연의 티켓 가격이 정해지게 된다. 즉 제작비, 총 객석 수, 예상

관객 수 등에 따라 티켓 가격은 다양하게 책정될 수 있다.

시공간 제약 받는 실시간 예술

영화도 오페라와 같이 제작비, 인건비, 홍보비 등이 발생한다. 오히려 제작 규모도 크고 스타급 배우들이 출연할 경우에는 출연료도 어마어마하다. 참여하는 스태프의 수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도 1만원 대인 영화 관람비에 비해 오페라 관람비는 무려 10배 이상 비싸다.

이러한 관람비의 차이는 공연의 공간적, 시간적 제약과 관련이 있다. 영화는 한 번 촬영을 끝내면 완성된 필름으로 전 세계 동시 상영이 가능하고, 하루에 상영할 수 있는 횟수의 제한 및 관객 동원 제약이 적지만 오페라는 제한된 공간, 상연 횟수의 제한을 받는다. 오페라는 출연진과 스태프들에게 회차별로 출연료를 지급하므로 상연 횟수가 늘어날수록 제작비의 금액도 높아지게 된다.

공연장 대관료도 무시할 수 없다. 공연의 규모가 클수록, 참여 인원이 많을수록 티켓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전체 공연 기간에 따라서도 티켓 가격은 영향을 받게 된다.

오페라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시간 예술'이고, 길게는 3시간씩 하는 공연을 하루에 몇 번씩 할 수는 없다. 결국 오페라는 투입되는 제작비 대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티켓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

공연 티켓을 할인 받는 방법

- 프리뷰 공연 예매를 통해 할인 받기(20~30%)
프리뷰 공연은 본 공연에 앞서 일정 기간동안 진행되는 시험적 공연으로, 정식 개막 전에 한발 먼저 작품을 만날 수 있으며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문화가 있는 날' 이벤트 할인 이용하기(최대 50%)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각종 공연들을 저렴하게 볼 수 있다. 문화포털 '문화가 있는 날'의 홈페이지(www.culture.go.kr/wday)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세아제강



One SeAH Program 시행

세아제강은 지난 6월 26일부터 1주일간 해외 지사 우수 인력의 국내 사업장 견학 프로그램 'One SeAH Program'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외지사 우수 인재 육성 및 소속감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는 베트남 및 이탈리아 지사에서 총 4명이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세아제강 본사와 사업장을 견학하며 회사의 역사 및 사업 현황, 글로벌 사업 비전 등을 공유했으며, 서울 시티투어 및 경주 역사투어를 통해 한국 문화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아씨엠



급식 봉사 활동 진행

지난 7월 세아씨엠은 무료급식소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세아씨엠은 협력사 직원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군산시에서 마련한 무료 급식소를 방문해 배식 및 설거지, 청소 등의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봉사 활동에 참여한 참가자는 '더운 날이었지만 맛있게 식사 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 하루였다'라고 말했다. 세아씨엠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이웃사랑 실천에 적극 동참해나갈 계획이다.

세아베스틸



흑서기 Cool 이벤트 실시

세아베스틸은 지난 7월 21일과 26일에 2017년 Cool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번 이벤트는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 기획된 것으로, 직원들에게 시원한 수박화채를 전달하며 잠시나마 휴식과 시원함을 선사했다. 화채를 받은 직원들은 더위로 인해 가장 일하기 힘든 시기이지만, 회사에서 깜짝 이벤트로 응원을 해주니 더욱 힘이 나는 것 같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세아베스틸은 8월 중에도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Cool 이벤트를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세아 M&S



2017년 하반기 전략회의

지난 6월 28일 세아 M&S는 여수공장에서 하반기 사업계획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팀별로 상반기 목표에 대한 실적평가 및 하반기 목표달성 전략을 발표했다. 마정락 대표이사는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주요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적극적 참여와 관심, 정보 공유를 통해 목표달성에 정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전 직원에게 '목표에 대한 공유, 조직에 대한 로열티, 부서간 건설적 협업'을 가슴에 새기며 업무에 정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아창원특수강



'제18회 철의 날' 장관상 수상

6월 9일 '제18회 철의 날' 기념식에서 세아창원 특수강 제2제강팀 한정철 기술주임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철의 날'은 대한민국 현대식 용광로에서 처음 쇳물이 생산된 날을 기념하는 날로, 이날 한 주임은 고청정 저원가 제조기술 확립을 통해 원가절감 및 친환경 생산체제를 구축하여 철강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한 주임은 '함께 노력한 2제강팀 구성원들에게 감사하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세아엔지니어링



가스터빈 압축기 출하식

지난 6월 15일 세아엔지니어링은 대전공장에서 가스터빈 압축기 TurboPhase Module Package 1호기 출하식을 진행했다. 가스터빈 압축기는 발전소의 발전 효율을 높이고 여름철 발전소 전기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발전설비이다. 금번 출하식을 통해 세아엔지니어링은 Package 전반에 대한 설계, 해석, 제작, 조립, 시운전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다. 출하식 행사에 참석한 박원식 대표이사는 모든 임직원이 힘을 합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낸 노고를 치하했다.

세아홀딩스

출산

봉효진 인재경영파트

조의

주을중 경영지원파트(모친)

박병도 경영지원파트(모친)

배영희 자재관리팀(빙부)
이상훈 소형압연팀(빙부)
임신욱 대형압연팀(빙부)
오태석 I-프로젝트팀(빙부)
김동철 품질보증2팀(빙부)
김석호 압연설비팀(빙모)
황연희 연주팀(빙모)
송병이 소형압연팀(빙모)

결혼

홍우중 충주 생산팀

출산

류상우 서울 경영기획팀

이동희 포항 품질보증팀

이경원 부산 부산영업소

조의

이용진 포항 안전환경설비팀(조부)

이승민 포항 생산팀(조모)

이외관 포항 생산팀(빙모)

세아엔지니어링

입사

김희동 서비스팀

출산

최병환 개발3팀

노지웅 서비스팀

세아제강

입사

조미경 창원공장 업무지원팀

출산

전안나 수출3팀

이광표 수출2팀

김상아 서울영업3팀

황인웅 서울영업3팀

이경근 군산강관공장 생산팀

박중삼 포항공장 생산3팀

세아창원특수강

출산

성준석 품질보증팀

김정욱 압연설비팀

이용진 강관팀

우경한 설비지원팀

결혼

정길용 설비지원팀

조남빈 마케팅팀

김형신 제품연구2그룹

조의

정희태 창원공장 생산팀(부친)

최양락 포항공장 설비보전팀(모친)

조의

서법수 2제강팀(모친)

권순용 강관단조설비팀(모친)

주환구 강관팀(빙부)

안재환 3제강팀(빙부)

김지훈 3제강팀(빙부)

천정의 설비지원팀(빙모)

류광식 가공팀(빙모)

공정표 품질보증팀(빙모)

세아베스틸

결혼

정진수 제강설비팀

조의

임승곤 소형압연팀(부친)

정규식 품질보증2팀(부친)

최양선 단조생산팀(부친)

김민곤 제강팀(모친)

최낙형 제강팀(모친)

김영찬 연주팀(모친)

세아특수강

입사

양윤서 포항 생산팀

이진실 포항 물류자재팀

이예림 포항 품질보증팀

세아 ESAB

출산

양재봉 생산팀

박희용 재경팀

조의

최창민 생산팀(모친)

최두용 재경팀(빙부)

세아메탈

조의

김성민 생산설비팀(빙모)

세아 L&S

입사

박지영 인천영업소

지혜정 재경기획팀

조의

조윤삼 대표이사(모친)

Post Box 독자참여

Reader's Letters 세아 가족 여러분이 지난 호 <세아가족>에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입니다.

테마 에세이를 통해 일상의 일들이 단순한 것 같아도 전체 퍼즐의 한 조각들처럼 중요한 순간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자 오늘도 다짐해봅니다. 항상 <세아가족>을 읽으며 일상의 비타민처럼 에너지를 충전하고 합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 기대하겠습니다.

- 장옥자

세아의 정보화 히스토리를 통해 지금의 세아로 성장하기까지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누구보다 민첩하게,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성장해왔듯 앞으로도 100년 기업을 향해 순항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 지태호

특별한 만남 코너를 읽으며 사보 이름을 왜 <세아가족>이라 지었는지 짐작되더군요. 세아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서 동료에 이상의 무엇인가가 느껴집니다. 이러한 마음가짐들이 모여 지금의 세아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승승장구하는 '세아'가 되길 바랍니다.

- 전진혁

사보를 보면 세아의 소식을 한눈에 접할 수 있어 좋습니다. 회사의 소식부터 시작해 숨겨진 따뜻한 이야기들을 읽어 나가면, 어느새 세아의 가족임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도 따뜻하고 알찬 이야기 많이 실어주세요! 세아 가족 파이팅!

- 오신애

먼 타국에서 세아를 알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멕시코 영업팀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세아에는 티나지 않지만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아의 숨은 영웅들을 위한 사보 코너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세아가족'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사보 팀에 감사드립니다.

- 김태형

세아의 다양한 소식과 각 계열사별 성장과 변화들을 볼 수 있어 항상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철강 사랑 마라톤 대회 이야기를 읽으며, 내년에는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 이백호

Quiz <세아가족> 7+8호를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퀴즈 정답을 엿처에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1. 지난 7월 1일, 기존 세아제강 판재사업부에서 분할신설법인으로 공식 출범한 법인의 이름은?
1. 세아에이엠 2. 세아비엠 3. 세아씨엠 4. 세아디엠
2. 2017 하반기 그룹 신입사원 입문교육을 수료한 신입사원은 모두 몇 명일까요?
1. 21명 2. 22명 3. 23명 4. 24명
3. GCC는 걸프협력회의를 뜻하며 SeAH Steel UAE 판매팀이 판매 활동을 수행하는 나라들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는?
1. 사우디아라비아 2. 쿠웨이트 3. 아랍에미리트 4. 레바논

지난 호 퀴즈 정답자			
장옥자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오신애	전북 군산시 수송동로
지태호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김태형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전진혁	경북 경주시 외동읍	이백호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천로

사우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세아가족>은 세아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사보입니다. <세아가족>에 소개할 만한 세아인,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부서, 화목한 세아 가족, 감명 깊게 본 영화나 책 등을 추천해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가 모두 함께 소통하는 <세아가족>을 만드는 초석이 됩니다. 문의 hyunho.lee@seah.co.kr / 02-6970-0095



We are passionate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세아의 열정에 한계란 없습니다.

아시아, 북아메리카, 중동, 유럽 등 전 세계 시장을 개척하며

앞선 기술과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 받는 철강소재 전문기업, 세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SeAH

세아인은 정직, 열정, 실력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세아홀딩스 세아제강 세아베스틸 세아창원특수강 세아특수강 세아씨엠 세아FS 세아ESAB 세아메탈 세아M&S 세아L&S 세아엔지니어링 세아네트웍스